

사람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상 30장

◆ CHECK POINTS

- ① 다윗은 아말렉 족속이 백성들을 급습한 것을 알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 ② 그들의 뒤를 쫓아가 승리하는 과정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 ③ 우리는 삶에서 만나는 회복의 기쁨과 유익을 어떻게 나누고 있습니까?

앞서 29장에서 다윗은 블레셋으로 피신했던 지난 과오로 인해 억지로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전투에 참전할 수 밖에 없었으나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30장에서 다윗이 시글락 땅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아말렉 족속은 그의 가족과 백성들을 급습하여 그들을 사로잡아간 후였습니다. 다윗은 큰 슬픔과 아픔에 빠지게 됩니다.

◎ 아말렉과 추종자들의 공격을 받다 (1-10절)

다윗과 그의 군인들이 3일 만에 시글락 성으로 복귀했을 때 이미 그곳은 아말렉 족속의 습격을 받아 성은 불타고 가족과 식솔들은 모두 사로 잡혀 간 상황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비열한 족속으로 알려져 왔기에(출 17:8-16) 이 사건은 다윗과 그의 군인들에게 큰 고통과 낙심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모두가 소리 높여 울고 난 후, 가족을 잃은 이들은 다윗을 원망하여 돌로 치려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안과 밖의 큰 위기 속에서도, 기도 중,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습니다.



다윗이 아말렉을 추격하다가 머물렀던 브솔 시내 (Besor Ravine)

삼상 30:3,4,6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성읍으로 들어와 보니, 성은 불타 버렸고, 아내들과 아이들이 모두 사로잡혀 갔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목놓아 울었다. 모두들 더 이상 울 힘이 없어 지칠 때까지 울었다.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곤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시 25:16-22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호 6:1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오늘 말씀은 삶의 위기 앞에서 사울과 다윗의 다른 모습을 대조하며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1) 하나,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 위기 중 무엇을 해야할지 몰라 신접한 무당을 찾아갔지만 다윗은 아말렉의 습격의 위기와 자신의 추종자들까지 자신을 죽이려는 상황 속에서도 문제의 해결 방법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였습니다.

2) 둘, 위기의 순간 사울은 자기 안위만을 위해 구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였으나 다윗은 다른 이들과 함께 아파하며 기도 중 구원에 대한 확실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3) 셋, 결국 사울은 위기로 인해 자기가 내린 명령을 스스로 어기고 자기 몸조차 가누지 못했으나 다윗은 위기를 이기고 오늘 온 백성을 위한 새로운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 아말렉을 추격하여 승리하고 돌아오다 (11-20절)

다윗은 기도 중 “아말렉을 따라잡으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600명과 함께 아말렉을 추격하여 바로 떠나게 되는데 그들 중 이미 지친 200명의 군사들은 시글락에서 15마일 정도에 위치한 “브솔 시내”에 머물며 쉬게 됩니다.

다윗의 군대가 더욱 남서쪽으로 진군하던 중 우연히 쓰러져 있는 한 애굽 소년을 만나 간호하여 살려주게 됩니다. 당장의 사역보다 사람 자체를 중히 여겨 우선 순위에 두었던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푼 선행을 받은 애굽 소년은 아말렉 족속의 노예로 사흘 전 병들어 버림받은 상황이었고 다윗 일행은 소년의 도움과 인도로 아말렉의 행방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한참 약탈과 쾌락에 취해 있던 아말렉 족속을 단숨에 쳐서 일거에 대승을 거둡니다.

삼상 30:13,17 다윗이 그에게 물어 보았다. "너의 주인은 누구이며, 네가 사는 곳은 어디냐?" 그가 대답하였다. "저는 이집트 소년으로서, 아말렉 사람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사흘 전에 제가 병이 들자, 저의 주인이 저를 버리고 갔습니다. 다윗이 새벽부터 그 이튿날 저녁때까지 그들을 치니, 그들 가운데서 낙타를 탄 젊은이 사백 명이 도망친 것 말고는, 한 사람도 살아 남지 못하였다."

계속 되는 위기
다윗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의 반응들

삼상 30:3,4,6
시 25:16-22
호 6:1

깨닫지 못하는
중에도 끊임없이
세밀하게 역사
하시는 하나님

삼상 30:13,17
신 15:7,8
고전 9:19

신 15:7,8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기를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 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고전 9:19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제 오늘 말씀은 사람을 향한 아말렉인과 다윗의 모습을 비교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분명 노예 소년의 주인인 아말렉인은 강한 힘을 소유한 “강자”였지만 병든 아이의 목숨은 가볍게 여기는 “약자”였고, 반면 다윗 일행은 고난으로 “약함” 속에서도 더 연약한 자를 돌보는 진정한 “강자”였습니다. 우리는 약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심으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 모든 이들과 회복의 기쁨과 유익을 나누다 (21-31절)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잃은 것 없이 모두 찾음으로 패배에서 승리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때 다윗의 군사들 가운데 약한 자와 불량한 자는 이전에 브솔 시내에서 따라오지 못하고 짐만 지킨 200명에게는 가족만 돌려주고 아무 것도 나누어 주지 말자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우리의 승리는 우리 힘이 아닌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서 비롯되었기에 서로의 손익, 득실을 따지지 않고 다같이 나눌 것을 명령합니다.

이 날부터 “동일 분배의 원칙”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율례와 규례가 되었습니다.

삼상 30:23-25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달랠다. "동지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 주셨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되오. 또 동지들이 제안한 이 말을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소. 전쟁에 나갔던 사람의 몫이나, 남아서 물건을 지킨 사람의 몫이나, 똑같아야 하오. 모두 똑같은 몫으로 나누어야 하오." 다윗이 이 때에 이스라엘에서 정한 것이 율례와 규례가 되어, 그 때부터 오늘날까지 지켜지고 있다.



시 19:1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 20:5-7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의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오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기쁨과 유익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고 모든 이들의 삶에도 같은 기쁨과 유익으로, 선한 영향으로 나타나야함을 알려주십니다.

다윗의 승리는 이스라엘 왕국이 더욱 굳건히 세워지고 있다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으나 무엇보다 사람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사람의 모습을 제시함에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 참고자료: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의 악연”

<p style="text-align: center;">아말렉 족속의 위치</p> 	
<p>아말렉을 상대로 두 손들고 기도하여 승리하고 쌓은 제단, “여호와 닛시”(출17:8-16) “아말렉 전쟁”(Battle with the Amalekites) by 줄리어스 카로스펠드 (Julius Schnorr von Carolsfeld) (1860),</p>	
<p>“아말렉”(Amalek) 족속은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남서부에 위치한 민족으로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이 낳은 아들이 아말렉이었으니, 즉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의 자손들입니다.</p> <p>하지만,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과 역사적으로 원수가 되었는데 오래전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치고 쉬고 있던 차에 아말렉 족속이 기습적으로 공격과 약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아론과 훌의 기도 가운데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여호와 닛시”(하나님의 깃발, 승리)라고 제단을 명명하였습니다.</p> <p>그 후로 숙적 아말렉은 계속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에스더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 역시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의 마지막 후손이었습니다.</p> <p>그렇게 출애굽 시기에서 시작된 적대가 사울 시대와 다윗 시대를 거쳐서 바사(페르시아)의 에스더 시대까지 1000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말씀에서 계속 등장하는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하나님의 백성과 우상의 백성들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예시가 되었던 것입니다.</p>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나누는 기쁨과 유익

삼상 30:23-25
 시 19:1
 시 20:5-7